

본문 : 요한복음 11 장 28-37 절

제목 : 눈물의 사람

1. 참으로 인간이고자...

Hans Küng 이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쓴 책 중에 <왜 그리스도인인가, Why I Am Still a Christian>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책인데, 결론은 매우 심플합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답은 '참으로 인간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에 빠짐으로 인간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없게 되었죠. 예수님은 참 인간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과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 온전한 인간성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답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을 만나면 참 좋다는 감정이 자연스레 생기게 됩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이 맑아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요한복음 14 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와서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보여주신 분이셨어요.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가요?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인간다운 모습이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참으로 인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2. 예수님의 제자, 마리아

지난 번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베다니 동네로 들어오는 입구에서 마르다와 만나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베드로급의 신앙고백을 드린 후에 예수님의 심부름을 위해 집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마르다는 마리아를 불러 조용히(가만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겠죠.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급하게 일어나 예수님께로 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승의 부름에 대해 곧바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바람직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마리아의 모습은 그녀가 예수님을 뵈자마자 그 발 아래에 엎드리는 장면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랍비 전통에서 제자들은 스승의 발치 아래 앉거나 엎드려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마리아도 스승이신 예수님을 향해 존경을 표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엎드린 것이었죠.

마리아는 먼저 오빠가 죽은 것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예수님께 표현합니다.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망이라기보다 오빠를 잃은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허물 없이 친밀한 관계이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엎드린 채로 흐느껴 울었습니다.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함께 따라왔던 유대인들도 덩달아 울었습니다. 한순간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만남은 울음바다가 되버렸습니다.

3.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 하셨다고 합니다. ‘비통하여 괴로워하다’는 뜻의 헬라어는 Tarasso(ταράσσω) 입니다. 내적인 고요함이 사라지고 흔들리며 동요하는 상태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본문 외에 ‘타라쏘’라는 단어가 쓰이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먼저 마태복음 2 장 3 절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는 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자 헤롯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황하였다고 하는데, 이 때 ‘당황하다’라는 단어가 ‘타라쏘’입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14 장 26 절에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죠. 그때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소리를 지르죠. 이 때 ‘겁에 질리다’라는 뜻으로 ‘타라쏘’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통하여 괴로워했다는 것은 내적인 고요가 깨어질 정도로 예수님께서 동요되었고 마음이 슬프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적 평화가 깨어지고 슬픔이 예수님을 덮으면서 예수님도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요동하시고 슬퍼하는 걸 보면 정말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우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다가올 심판과 파괴를 미리 아시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죠. 또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핏물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개인에 대해 눈물을 흘리신 것은 본문이 유일합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가족들의 슬픔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 예수님이 참 인간적이라 느껴집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눈물이야말로 공감의 눈물입니다. 타자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여 몸으로 반응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공감하시며 함께 시험을 당하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체휼하다”로 번역했는데 몸으로 긍휼을 표현한다는 뜻이죠. 눈물이야말로 긍휼에 대한 우리 몸의 기본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공감의 눈물이야말로 참으로 인간다운 모습인 겁니다. 겻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죽음의 공포 앞에 벌벌 떨고 있는 한 인간의 고뇌와 연약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4. 살균하는 눈물

“피도 눈물도 없다”는 말을 하곤하죠. 어떤 사람이 인정이나 자비가 없다는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으면 살아 있는 사람일까요? 피도 눈물도 없다는 말은 사람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꿔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피와 눈물을 흘려 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참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죽음의 운명과 맞서야 하는 죄에 빠진 인간을 향한 긍휼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인간은 죽을 수 밖에 없고 멸망할 수 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와 그의 가족을 향한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인간들과 인류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동정의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겻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눈물도 자신의 운명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흘린 눈물이기도 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공감과 긍휼에서 나온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한 때 한국교회에서는 고난주간만 되면 멜깅슨 주연의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학대와 고난을 매우 디테일하게 묘사한 영화였죠. 그 영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앵글이 하늘로 옮겨집니다. 하늘 높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춰지다 눈물이 땅바닥으로 똑 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그렇게 묘사한 것이었죠. 아들을 죽여야만 했던

하나님의 눈물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해 주는 것도 없었기에 감독은 그렇게 연출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세상을 치유한 것입니다. 그 영화에서 눈물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드러내 줄 수 있는 최고의 소품이었습니다.

일제 시대에 활동했던 목사님이신 이용도 목사님이 쓰신 <눈물을 주소서>라는 시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을 주소서 – 이용도

오늘의 우리는 눈물이 다 말랐습니다.

눈물 없는 곳에 못된 것들만 무성하여 있습니다.

눈물은 살균력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 이기 등은 전염병균과 같아서 자신을 죽이고, 또 남의 가슴에 살충을 박아 죽게 하는 악독한 병균입니다.

이 모든 균들은 눈물로써 죽일 수 있습니다.

동정의 눈물이 쏟아질 때,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쏟아질 때, 남을 원망하는 것이나 시기, 불평, 이기행위 등, 모든 불선의 병균은 다 죽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따스하고 온유하고 미쁜 새 마음을 내어 줍니다.

마치 상처의 소독을 한 후에 새 살이 돋아 나오듯이!

타자를 위한 눈물은 치유하는 힘이 있음을 알려주는 귀한 시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균들을 몰아냅니다. 부모의 눈물로 자라난 아이들은 따스하고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이웃의 슬픔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야말로 참 예수의 제자입니다.

5. 참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요즘 인기가 있는데 지난 주 미네소타 한인교회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도 이 드라마가 화젯거리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파장을 일으킨 작품인가 봅니다. 이 드라마를 보려면 클리넥스 한 통은 준비하시고 보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들들도 같이 보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너무 많이 울어서 진이 빠져서 못 보겠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사람이 우는 데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는 로마서 말씀이 쉬운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드라마를 보며 우는데 정작 우리 주변에 실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위해 얼마나 울었나 하는 반성도 들더군요. 미안마 지진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구촌 이웃들을 보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덤덤한 저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미혼모들을 돕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슬픔과 애환이 얼마나 깊을까에 대해 헤아려 본적도 없고 눈물을 흘린 적도 없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성도들의 나름대로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위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함께 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 기독교인입니까? 참으로 인간이기 위해 우리는 기독교인이어야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인간미가 얼마나 느껴질까요? 세상 사람들은 '너희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나는 이런 사람이다'고 소리쳐도 소용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를 보는 것이 객관적입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지 않는다 하는 것일까요? 기독교인이란 '예수님이 나의 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고백만 하고 길은 걸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나의 외부에 있고, 나와 상관이 없고, 나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정이자 자기 비움이면서 자기 지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백만 하고 예수의 길은 가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고 비난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신앙은 생활로 번역되고 일상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긍휼과 사랑은 수 없이 많은 말의 고백보다 눈물 한 방울을 통해 위력을 발휘합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다운 분이셨는지 우리는 목상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주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제게 일어날 수 있죠?"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6. 눈물의 사람

예수의 향기, 예수의 냄새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 냄새야 말로 예수의 냄새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가 맑아지는 것을 느껴!" 우리 모두 이런 말을 들어야지 않겠습니까? 눈물이 있는 곳에 예수의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의 냄새가

진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아름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가장 오만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분들이 더할 나위 없이 겸손하게 살고,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살 수 밖에 없는 분이 너무나 맑게 살고 있고, 또 가난하지만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남에게 주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피와 눈물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책 <뜻으로 본 한국역사>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 하늘나라가 보인다." 다른 이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여 흐르는 눈물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는 렌즈 역할을 한다는 깨달음이 참으로 귀합니다. 마종기 시인의 <나무가 있는 풍경>이란 시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왼과 열매 다 잃은 백양나무 하나가 울고 있습니다.
먼지 묻은 하느님의 사진을 닦고 있는 나무,
그래도 눈물은 영혼의 부동액이라구요?
눈물이 없으면 우리는 다 얼어버린다구요?
내가 몰입했던 단단한 뼈의 성문 열리고
울음 그치고 일어서는 내 백양나무 하나.

마종기 시인은 우리와 같은 미국 이민자이셨습니다. 가발 매장을 하던 동생이 권총 강도에 의해 사망한 일도 겪으실만큼 이민자로서 애환이 큰 시인이시죠. 이 시는 그런 눈물을 통과한 이후에 쓰여진 것 같습니다. 한 겨울에 왼과 옆매를 다 떨구고 외롭게 서 있는 백양나무를 통해 시인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통과했던 눈물의 세월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지치고 고된 이민자의 삶을 버티게 해준 것은 오히려 그 눈물이었다고 말해 줍니다. 눈물은 우리를 얼어붙지 않게 하는 부동액입니다. 눈물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렌즈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 있게 하는 부동액입니다. 눈물의 사람,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되길 축복합니다.